

<문: 삶과 꿈> 기말레포트

소설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2015)’ 비교 연구

목차

I. 서론

II. 소설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전개방식 비교

- 1)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줄거리
- 2) 소설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줄거리 비교

III. 소설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표현상 특징 분석

- 1) 소설 『돈 끼호테』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 2)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IV. 결론

V. 참고 문헌

I. 서론

이야기는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통해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과 특징을 가지고 독자, 청자,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이야기의 전달자마다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라도 줄거리 상, 표현상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달자들은 나름의 적합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며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을 표현한다. 본 논고에서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Saavedra)의 소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기발한 기사 라 만차의 돈 끼호테 2』(이하 통칭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2015)’의 줄거리 전개, 표현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연구해 보기로 한다.

II. 소설 『돈 끼호테』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전개방식 비교

-1)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줄거리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는 원작 약 40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에 미국에서 제작되었다.¹⁾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는 비교적 원작의 내용을 83분에 압축하여 잘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지만,²⁾ 전체적인 진행 방식은 소설과 차이가 있다. 다음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2015)’의 줄거리이다.

‘알론소 끼하노’라는 노인은 기사소설에 푹 빠져 기사 작위를 내려줄 귀족을 찾으려 자신을 ‘돈 끼호테’라고 부르며 무장한 채 길을 떠났다. 그는 엘 토보소의 한 객줏집에서 기사 작위를 받았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아 쫓겨났다. 그 때 그런 그를 한 아름다운 여성이 보살피주었는데, 그는 그녀를 자신의 모험에 힘을 불어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둘시네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의 징표를 가지고 싶다며 그녀의 손수건을 받아냈다. 사실은 그 객줏집의 딸로, 본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

다시 길을 떠난 그는,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있는 썬초 뽀사를 만났는데,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썬초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돈 끼호테는 고맙다며 그를 자신의 하인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고, 썬초의 집에도 찾아갔다. 아내 테레사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썬초는 돈 끼호테의 하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들은 마법사 ‘프레스톤’과 용이 사는 곳을 목적지로 삼으며 본격적으로 모험을 시작했다. 돈 끼호테는 새로운 투구(맘브리노 황금투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원작과 같은 과정으로 ‘맘브리노 요술투구’를 얻었다. 돈 끼호테는 길을 가다가 납치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여인(백작부인)을 구하기 위해 그녀와 동행하던 수도사와 하인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후 그들은 일렬로 묶여서 가는 죄수들을 마주쳐 그들 중 하나인 히네스 데 빠사몬테에게서 썬초의 당나귀를 빼앗기기도 했으며, 썬초는 엘 토보소에서 둘시네아를 만나 돈 끼호테가 하는 사랑의 말과 징표인 손수건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

1)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2015)」, Daum 영화, 2017.1.,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9443>

2)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DON QUIXOTE THE INGENIOUS GENTLEMAN OF LA MANCHA, 2015)」,
감자의 3류 비평, 2017.01.28., <https://gamja-blog.tistory.com/1287>

나야하기도 했다.

그의 명령을 이행한 싼초는 누구보다도 돈 끼호떼를 걱정하는 조카딸 안토니아와 돌시네아, 그리고 안토니아를 흠모하기에 그녀 옆에 머무르며 삼촌 찾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미구엘을 만나 돈 끼호떼를 집에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짰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안은 돌시네아로 하여금 공주 연기를 하게 해 '그녀의 왕국이 마법사 프레스톤의 침범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돈 끼호떼의 모험심을 자극하여 더욱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다. 결국, 이번에는 그 4명이 그를 따라 나섰는데, 그는 중간에 마주친 '형제단'의 심기를 건드려 잡혀가고 말았다. 이에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고, 싼초는 아예 여기서 손을 떼려 했으나 계속해서 돈 끼호떼의 환상이 보여 그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형제단을 찾아갔다. 그는 그들에게 와인을 먹여 곱아떨어지게 한 다음 돈 끼호떼를 빼내려 했으나, 오히려 함께 갇혀있었던 히네스 데 빠사몬떼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중범죄자였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그에게 쏠려, 싼초와 돈 끼호떼는 여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길에 '하얀 달의 기사'라는 사람과도 마주쳤는데, 그는 돈 끼호떼에게 결투를 신청하였다. 원작처럼 돈 끼호떼는 가소롭다는 듯 그와의 싸움에 임했지만 지고 말았다. 그는 잠시 우울해했으나 기사로서의 삶이 아닌 전원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면서 싼초와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하얀 달의 기사'는 미구엘이었는데, 안토니아의 걱정거리(=돈 끼호떼)를 덜어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돈 끼호떼는 집에 돌아가 아주 긴 휴식을 취하고, 그 사이에 그와 싼초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그리고 이내 그가 병에 들어 위독해져 침상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그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알론소 끼하노라고 부르고, 돈 끼호떼가 되었던 것 같은 생생한 꿈을 꿔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싼초와 함께 말을 타고 싶다고 했고, 영화는 그들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말을 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2)소설 『돈 끼호떼』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줄거리 비교

본 순서에서는 소설 『돈 끼호떼』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차이점에 집중하며 줄거리를 비교한다.

첫 번째로, 영화에서는 여행의 목적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의 돈 끼호떼는 방랑기사가 되어 모험을 찾아 '세상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책에서 읽은 대로 방랑기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 수행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여기고³⁾ 긴 여정을 떠나지만, 영화에서는 마법사 '프레스톤'과 용이 있는 곳이 곧 그들의 목적지라며 더욱 상세한 목표를 설정한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마법사 프레스톤이 그의 책을 태웠다고 생각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두 번째는 돌시네아 설정의 차이이다. 소설에서는 돈 끼호떼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섬길 귀부인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가 한 때 짝사랑했었던 엘 토보소가 고향인 '알론사 로렌소'가 그 대상이며,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원래 이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공주나 귀부인 냄새가 나는'⁴⁾ '돌시네아'라는 이름을 붙인다. 반면 영화에서의 돌시네아는 돈 끼호떼가 기사서품을 받으러 갔던 엘 토보소의 객줏집의 딸로 나오며, 그녀의 본명은 끝내 등

3) Miguel de Cervantes, *Don Quixote I*(1605), 민용태 역, 창비, 2005, 48쪽.

4) 위의 책, 52쪽.

장하지 않는다. 또한 영화에서는 돌시네아가 객줏집에서 쫓겨난 돈 끼호떼를 보듬어주고, 증표를 달라는 그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주기도 하며 이후 그가 집에 돌아오도록 공주연기를 하기도 한다. 그녀는 영화의 말미에서 “저를 예쁘게 봐 준 사람은 돈 끼호떼 나리뿐이에요.”라고도 하는데,⁵⁾ 이렇게 돌시네아가 돈 끼호떼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소설과 영화의 큰 차이점이다.

세 번째는 돈 끼호떼의 기사소설을 불태우는 장면에서의 차이이다. 소설에서 가정부와 조카딸은 책을 불사를 것을 부추겼고, 이발사가 신부에게 책을 건네주면 신부가 책에 대해 설명하고 버릴지 말지를 판단했다. 그 결과 현실적인 기사의 모습이 담긴 책은 남겨졌고, 기사의 허황된 모습이 담긴 책은 버려졌다. 영화에서 조카딸이 기사소설을 태울 것을 주도하는 것은 소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소설과 달리 가 정부는 등장하지 않으며, 신부가 돈 끼호떼에게 기사소설을 제공한 장본인이고 책을 불태우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네 번째로, 영화에서는 돈 끼호떼가 ‘형제단’에게 잡혀간다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죄수들을 풀어주고, 돌팔매질을 당한 이후에 히네스 데 빠사몬테에 관한 언급은 있지만,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성스러운 형제단’에 대한 것은 없다. 반면 영화에서는 돈 끼호떼가 형제단에게 잡혀가는 히네스 데 빠사몬테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다가 그와 같이 끌려가고, 이후 싼초가 형제단으로부터 돈 끼호떼를 구해내는 장면이 연출된다.

다섯 번째는 ‘하얀 달의 기사’에 대한 차이이다. 소설에서는 싼손 까라스코 학사가 ‘숲의 기사’와 ‘하얀 달의 기사’로 변장하여 돈 끼호떼 앞에 등장한다. 돈 끼호떼가 세 번째 모험을 떠났을 때, 학사는 그가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기사로 위장하여 돈 끼호떼 앞에 나타났다. 학사는 결투를 신청하며 결투에서 패배할 경우, 기사로서의 직분을 버려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두 번째 결투에서 돈 끼호떼를 이겨 그를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을 성공했다. 반면 영화에서는 소설의 싼손 까라스코 대신 미구엘이 그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 번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게 한다. 인물과 결투 횟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하얀 달의 기사’가 돈 끼호떼를 집에 돌려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같다.

마지막으로, 돈 끼호떼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매개체의 차이를 보인다. 소설 제 2권에서는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떼 1』이라는 사라고사 이전까지의 돈 끼호떼 모험담을 담은 책이 등장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건이 전개된다. 반면에 영화에서는 병들어 누워있는 돈 끼호떼를 찾아온 싼초가 “저희 모험 이야기로 온 마을이 떠들썩해요.”라고 전하고⁶⁾ 마을 사람들이 말을 타는 그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외에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Ⅲ. 소설 『돈 끼호떼』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표현상 특징 분석

-1) 소설 『돈 끼호떼』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5) David Beier, 《Don Quixote: The Ingenious Gentleman of La Mancha》, 2015, USC Cinematic Arts

6) 위와 동일.

본 순서에서는 소설 『돈 끼호테』 상에서 두드러지는 5가지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언급한다.

우선, 작가 세르반테스는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작품 밖으로 한 발 물러나있다. 두 가지의 예시로 위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여럿의 원본작가를 내세우고 자신은 직접적인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며 이야기를 전개한 점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마호메트교의 철학자인 무어인 '시데 아메떼 베넹헬리'라는 가상의 작가를 수차례 언급하고, 자신은 번역자, 제 2의 작가이자 의붓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 1권 2장에서의 '작가에 따라서는~'이라는 부분은 여럿의 작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한 대목이다. 또, 제 2권 5장에서는 지금까지 무지한 모습을 보였던 싼초가 이 장에서는 '말투가 바뀌고 매우 고상한 일들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번역자는 원본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자신을 '이 역사의 번역자'라고 언급하며 원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르반테스는 작중에서 자신이 본 책의 저자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책을 역사, 혹은 전혀 다른 책인 것처럼 여기며 이야기를 전개한 점이다. 제 2권 31장에서는 '이야기책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책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진행하였다. 또, 제 2권 17장에서는 '알려진 바로는 이 대목에 이르러 이 진짜 역사의 작가는~'이라고도 언급하며 자신의 작품을 '역사'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을 작품 밖에 두고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세르반테스는 작가가 가지는 작품에 대한 책임과 강박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제 2권 5장처럼 작품의 내용을 전개하며 발생한 설정상의 오류를 '원본작가와 다른 작가들'에게 전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르반테스는 더욱 작품의 일관성 및 통일성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작품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원본의 작가로 내세우며, 그동안 작가는 실존해야 하고, 작품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실존하는 작가 본인이 직접 등장해야 한다는 단선적이고 일원화된 사고를 허물어뜨렸다. 이처럼 원본의 작가가 허구적 작가를 내세우며 물러나있는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17세기 작품인 돈 끼호테가 20세기에 등장했던 문학적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제 2권 작중에서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라는 책이 출간되어 돌아다니고, 소설 속 등장인물이 그것을 통해 돈 끼호테를 알게 되는 일명 '책 속의 책'의 등장이다. 제 2권 2장에서 싼초는 '시데 아메떼 베넹헬리(시데 아메떼 베넹헬리)'라는 작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라는 책으로 냈고, 이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소설 『돈 끼호테 2』에 나온 이 소설 『돈 끼호테 1』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 2권 30장부터 나오는 공작과 공작부인이 이미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라는 역사 이야기를 읽고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성으로 초대한 후 그를 골

7) 작가는 편집자에 불과하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작가는 죽은 것과 같다. 이에 독자는 작가의 의도에 따르지 않고 작품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감상해야 한다. 여기서 독자는 텍스트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작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존재이다. - 「인문학총람-목요학습 5, <저자의 죽음 Death of the Author 作者之死>」, 시방아트(SeeBangArt), 2017.08.23., <http://seebangart.com/archives/2937>

탕 먹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 2권 59장에서 돈 끼호떼는 사라고사에 있는 객줏집에서 돈 환과 돈 헤로니모를 만나서 그들과 위작인 『라 만차의 돈 끼호떼 2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험 장소를 사라고사가 아닌 바르셀로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 2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제 1권이 등장한다는 점은 독자로 하여금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제 2권 3장에서의 싘손 까라스코 학사와의 책에 관한 질의응답 장면같이 제 1권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은 전 권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그로 인한 재미를 느끼게 한다. 제 2권의 위작이 돌아다닌다고 하며 사라고사에서 행선지를 바꾸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실제로 『돈 끼호떼 2』가 나오기 1년 전인 1614년에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떼 2』라는 위작이 나와 세르반테스는 2권 59장을 쓸 때 이것을 알았다는 듯이 말한다. 이렇게 실제 위작을 작품 속에 출연시켜 이를 비판하고, 행선지를 바꿈으로써 위작을 부정하는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그것의 작가인 아베야네다를 돌려서 비판하는 세르반테스의 명석함 또한 느끼게 하였다.

세 번째로는 작가 세르반테스가 ‘돈 끼호떼’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단편 이야기를 작중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제 1권 33장부터 35장까지 등장하는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가 그 예시이다. 「호기심 많은 시건방진 친구 이야기」는 객줏집 주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나온, 손으로 쓴 여덟 장 정도의 작품이다. 신부는 가방 속 ‘필체 좋은 글씨로 쓰인 종이들은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며⁸⁾ 사람들 앞에서 이를 읽어준다.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소설의 개연성에 대하여 실제로 논의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르반테스가 ‘뒤에 출간한 『모범소설들』(*Las Novelas Ejemplares*)의 소설 형식과 비슷하며, 따라서 이 소설집의 일부로 들어갈 것을 여기에다 끼어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⁹⁾ 세르반테스는 이를 제 2권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이제 보니 내 역사를 쓴 작가는 현자가 아니고 무식한 말쟁이 같아. 어법이라는 것도 없이 그저 더듬더듬 무작정 쓴 거지. 마치 우베다의 오르바네하라는 화가가 했다는 것처럼 말이야. 그 사람은 무얼 그리느냐고 물어보면 ‘나오는 대로 그리지’라고 대답했다는구먼. 어쩌다 수탉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그저 그렇게 잘못되면 그림 옆에다 크게 대문자로 ‘이건 수탉이오’라고 써놓아야 했다는 거야. 내 역사 이야기도 아마 그래야 될 모양이니, 이해하려면 해설이 따로 필요할 것 같아.”

이를 각주로 처리하여 각주에서는 자신의 즉흥적인 글쓰기에 대한 성찰을 하고, 사람들의 비판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척 하면서도 이야기의 삽입이 독자들의 다양한 재미를 위한 자신의 의도였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세르반테스는 또한 제 2권 44장의 ‘작가는 소설이라는 좁은 한계 안에 우주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스스로 그 이야기의 틀 속에 갇혀 자제하였으므로, 자신의 노고를 무시하지 말고 칭찬해달라고 청한다.’라는 대목에서도 자신이 소설 속에 단편소설을 삽입한 것에 대한 정당성 또한 부여하였다.

8) Miguel de Cervantes, 앞의 책, 485쪽.

9) 위의 책, 488쪽 각주1.

네 번째로는 다음 장의 내용을 예고하는 문장으로 장을 마무리 짓는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제 2권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장은 다음 장과의 연관성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장과 연결되는, 혹은 연관된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는 문장이다. 제 2권 9장의 ‘이 위대한 심부름에서 싼초에게는 새로운 주의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제 2권 37장의 ‘그리고 여기에서 작가는 이 작은 장을 마감하고 다음 장도 똑같은 모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와 같은 부분들이 이에 대한 예시이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전환을 예고하는 문장이다. 싼초 뺨사와 숲의 기사 하인의 이야기를 전개 하던 제 2권 13장을 ‘우리는 그들을 당분간 이대로 두고 이제 숲의 기사와 불쌍한 물골의 기사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라고 마무리하며 다음 장에서 숲의 기사와 돈 끼호테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 싼초 뺨사가 섬을 통치한 일화를 다루던 제 2권 45장을 ‘여기서 착한 싼초님은 머물러 계시게 하지요. 싼초의 주인님께서 알띠시도라 아씨의 음악 때문에 온통 가슴 설레며 아주 바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요.’라고 마무리하며 돈 끼호테의 이야기로 넘어간 부분, 상급시녀 도냐 로드리게스와 돈 끼호테와의 이야기를 다루던 제 2권 48장을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 알게 될 터이니 그를 잠깐 그대로 두자. 싼초 뺨사가 부르고 있으니, 이야기를 알맞게 잘 진행하려면 또 그쪽으로 가봐야지.’라고 마무리하며 싼초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들이 이에 대한 예시이다.

연관된 사건을 암시하는 첫 번째와 같은 마무리는 독자로 하여금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주의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 ‘가장 흥미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이러면서 사건이나 행동의 종결로 장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독자에게 책을 읽는 재미를 더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와 같은 마무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인물간의 이야기 사이의 전환을 시도한다. 특히 싼초 뺨사가 섬을 통치하러 가 돈 끼호테와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빈번히 발견된다. 이러한 마무리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야기를 알맞게 잘 진행하기 위해’ 자칫하면 어색하게 이어질 수 있는 두 장의 이음매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장치인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말놀이와 속담의 잦은 쓰임이다. 세르반테스 특유의 말놀이는 기준이 되는 단어를 한 음절만 바꾸는 것과 다수 음절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또 다른 단어도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전자의 예로는 제 2권 34장의 ‘esas cazas ni cazos’가 있다. 여기서 ‘a’를 ‘o’로 바꾸어 두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자인 민용태는 원문의 뜻은 ‘그 사냥인지 나무주걱인지’이지만, 이를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그 사냥인지 나발인지’로 적절히 바꾸었다. 후자의 예로는 제 2권 4장의 ‘나아가 통치자가 되어서 먹는 빵보다 통째로 아무렇게나 삼키는 빵이 더 맛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아무렇게나 생긴 빵’은 ‘pan desgobernado’이고 ‘통치자가 되어서’는 ‘siendo gobernador’인데, 세르반테스는 유사의미소 ‘gobierno’를 사용하여 내용과 알맞게 문장을 형성하였다.

세르반테스는 작중에 속담 또한 빈번하게 등장시켰는데, 이는 특히 싼초의 대사에서 부각된다. 그는 제 2권 19장에서의 “우리 여편네는 ‘모든 산양마다 제 짝이 있다’는 속담에 따라~”나 제 2권 34장에서의 ‘좋은 통치자는 다리를 부러뜨려 집에 뒹야지요.’¹⁰⁾처럼 대화를 할 때 속담을 자주 인용한다.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기도 하는 속담을 인용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많이 인용

10) 원래는 ‘결혼한 여자는 다리를 부러뜨려 집에 앉혀놓아야 안전하다’는 속담이다.

하기도 하는데, 제 2권 43장에서 돈 끼호테는 ‘속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록 짧은 격언이라지만, 자네는 아무 때나 무조건 속담을 끌어대기 때문에 무슨 가르침이 있는 격언이라기보다는 엉터리 말장난 같아 보인단 말씀이야.’라는 말과 ‘자네는 지금 한순간에 연속 기도문보다도 많은 속담을 퍼부었어. 그러니 우리 말이 지금 동문서답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로 산초의 이러한 면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세르반테스의 말놀이는 특정한 알파벳의 변형을 통해 문장에 리듬감을 주며 독자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문체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속담을 사용한 것의 효과는 두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담을 통해 그 상황을 빗대며 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초의 무식함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 2권 34장에서의 속담과 같이 산초는 속담을 원래와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돈 끼호테가 꾸짖은 것처럼 속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속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산초의 무식함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2)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다음은 영화 ‘돈키호테 맨 오브 라 만차(2015)’에서 두드러지는 4가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이다.

첫 번째는 나레이션을 삽입하였다는 점이다. 영화 첫 시작 부분에서 나레이터는 “머지않은 옛날 라 만차의 어느 마을에 기사도 책에 푹 빠진 한 노신사가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책만 보다가 정신이 반쯤 나가고 말았죠.”라고 하고, 중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그렇게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마지막 모험을 떠났고, 그의 전설은 계속됐습니다.”라고 하며 영화를 끝맺는다.¹¹⁾ 이렇게 영화의 시작과 끝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하면서, 영화의 구조에 더욱 안정감이 부여되었다.

두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장면을 연출했다는 점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풍차·거인사건에서 컴퓨터 그래픽은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 실제로 이 장면은 돈 끼호테가 풍차로 달려가 날개 부분에 걸린 장면이었지만, 돈 끼호테에게는 풍차가 서서히 갈라지면서 윗부분은 거인의 얼굴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점점 더 거대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삼키는 거인의 입까지 보이게 된다. 이는 영화 진행 중 돈 끼호테의 관점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더욱 뚜렷하게 전달한 것으로, 거인의 모습이 소설에서처럼 문장으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독자들은 그에게 공감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돈 끼호테의 바보 같은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면서 소설에서 밝히고 있는 중세 기사도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한다.

세 번째 특징은 적절한 배경음악의 활용이다. 배경음악은 영화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상황에 적절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면 그 분위기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 영화의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영화는 기타가 주 멜로디를 담당하는 스페인의 민속음악인 플라멩코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부가적인 설명 없이도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에스빠냐의 한 마을이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남긴

11) 각주 5와 동일.

다. 시대를 반영한 음악과 더불어 영화에서는 장면에 어우러지는 배경음악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대표적인 부분은 돈 끼호테가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는 장면과 하얀 달의 기사와의 결투 장면이다. 이 두 장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였다. 이는 돈 끼호테의 비장함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를 희화화하는 연출이기도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럽다고도 느껴진다.

네 번째 특징은 소설 속 사건의 일부를 선정하여 영화 속에 압축시켜놓았다는 것이다. 영화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황한 소설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감독은 소설의 내용 중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나름의 장면을 선별하여 영화 속에 담았다. 1시간 23분이라는 짧은 러닝 타임 내에서 선정한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 영화상의 내용은 소설에 비해 표면적으로 표현되고 간추려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설보다 좀 더 가벼워졌고, 이로 인해 원작의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못하였지만 감상자들은 작품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원작을 다 읽어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줄어든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소설과 영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에서 표현된 작품 ‘돈 끼호테’를 비교·분석했다.

소설은 분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자의 사상부터 이야기의 전개, 문장의 표현까지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소설 돈 끼호테에서는 장황하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며 작가가 나타내려는 생각 또한 매우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글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말놀이의 사용 등 작가 특유의 문체와 표현방식 등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장면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묘사한 영화에 비해 작품의 이해와 장면에 대한 독자의 상상을 더욱 요구하기에 영화를 볼 때보다 더욱 독자의 사고를 필요로 한다.

영화에서는 시각적·청각적인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보다 더욱 시청자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형한 모습도 보여서 『돈 끼호테』라는 작품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선별된 특정 사건들을 비교적 표면적으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소설에 비해서 시청자가 작품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작품의 이해에 대한 독자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소설에서 드러나는 세르반테스의 사상이나 생각을 모두 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 표현되어서 세르반테스 특유의 문체 또한 보기 어려웠다.

이처럼 소설과 영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돈 끼호테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독자 및 시청자들은 같은 이야기이지만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작품을 볼 때, 각각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감상한다면 더욱 풍부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 문헌

Miguel de Cervantes(민용태 역), *Don Quixote I*(1605), 창작과비평사, 2005.
David Beier, 《Don Quixote: The Ingenious Gentleman of La Mancha》, 2015, USC Cinematic Arts.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DON QUIXOTE THE INGENIOUS GENTLEMAN OF LA MANCHA, 2015」, 감자의 3류 비평, 2017.1.28., <https://gamja-blog.tistory.com/1287>

「돈키호테 맨 오브 라만차(2015)」, Daum 영화, 2017.1.,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89443>

「인문학총람-목요학습 5, <저자의 죽음 Death of the Author 作者之死>」, 시방아트 (SeeBangArt), 2017.08.23., <http://seebangart.com/archives/2937>